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찬양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영혼의 봄바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3월입니다.

아직 추위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 이곳 저곳에서 움트는 새싹을 바라보며 생명의 환희를 느껴봅니다.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담장 내리찍는 따뜻한 봄별,

노랑게 피어나는 개나리를 보며

그곳에 창조자의 손길 곱게곱게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여!

얼어붙은 땅 녹이시고

잠든 새싹을 틔우시듯,

이천 년 전

십자가에 머물렀던 생명의 바람을 타고 오소서.

마침내

주께선 따뜻한 영혼의 봄바람이 되시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가슴에 영원한 소망의 꽃을 피워주소서

구원의 아름다운 꽃을!

2001년 3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시편 서론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은 본래 유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이나 기도의 지침서였습니다. 때문에 시편들은 유대 민족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찬양의 매개였던 경배 및 예배용 찬송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의 유형을 ①슬픔의 시(3-7, 9-10, 22, 32, 42-44, 51, 60, 94, 102, 137편), ②감사의 시(18, 30, 32, 34, 56, 75, 107, 118, 138편), ③찬송의 시(19, 47, 92, 96, 103, 105, 111, 113-114, 117, 146-150편)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범주는 모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율법서와는 달리 인간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고백과 아울러 시편은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이 그를 섬겨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사야서와 더불어 시편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에게 가장 자주 인용된 책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다양한 면모들(시 22:1; 막 15:34)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의(시 110:1; 행 2:31-36)를 설명하기 위해 시편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 8, 22, 40, 45, 110편과 관련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예언적이거나 메시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생과

사역의 전부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구자들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이 찬양들, 탄원시들, 교훈 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 시들을 그들의 삶과 예배의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충현의 성도들 역시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우주적인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요내용

- | | |
|-----------------------|------------|
| 1. 사람과 창조에 관한 시편 | (1~41편) |
| 2. 이스라엘과 구속에 관한 시편 | (42~72편) |
| 3. 예배와 성전에 관한 시편 | (73~89편) |
| 4. 우리의 지상 체류에 관한 시편 | (90~106편) |
| 5.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 | (107~150편) |

• 각 부문은 각기 찬양 송영으로 끝나며(41, 72, 89, 106편), 마지막 부문에는 송영이 여섯 장이 있습니다(145~150편)

구약의 성도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17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시며(1절) 또한 모든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2절).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5절).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으며(3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5절).

이제 이 진리를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 있노라고 고백합니다(6-10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12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더욱더 은혜의 복음을 구하고 간구합니다(11, 13절).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축복해 주시고(16절) 대적하고 유혹하는 원수들은 부끄럽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14, 15절).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시편을 끝맺습니다(17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질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에서 나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민음의 사람 다윗,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자였습니다(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때때로 고통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의 죄악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정죄하고 악담했습니다. 그의 원수들도 그리하였고(5-8절) 그의 친구들마저도 그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9절). 이처럼 그는 이중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오직 악담과 대적만이 있을 뿐 위로해 주는 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참된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즉시로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10-12절). 그 기도의 결과는 위로와 승리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아픈 삶의 경험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권고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1-3절).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똑같이 악담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처럼 그들을 권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위로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위로와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위로와 승리가 있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 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낙망할 일이 많습니다. 이 낙망의 상황에서 탈출하여 희망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환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니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그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3, 4절). 그러나 그는 바로 그때 낙망 중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6, 7절).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8절). 그는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1, 2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소원을 간구했습니다(9, 10절). 그가 그 낙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낙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낙망 중에서 불안해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낙망으로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5, 11절)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망하는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낙망하여 불안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으로 인해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원수들의 압제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시편 기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내어놓고 간구했습니다. 먼저 그는 원수들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1, 2절). 뿐만 아니라 어떤 환란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마칠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뵈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3, 4절).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찾는 삶은 결국 그를 낙망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세상의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낙망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승리와 찬송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승리의 찬송을 체험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옛 열조들이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영화가 자신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1-8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멀리하심으로 오히려 원수들의 조롱과 압제,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하다고 애통해 합니다(9-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주님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17-21절).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자기들에게도 베풀어달라고, 그리하여 모든 원수의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22-26절).

우리 중에 지금 시편 기자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언약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가운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생을 살다보면 삶의 변화요인을 많이 만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도 변화의 폭이 큰 요인으로 결혼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는 이스라엘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왕시'로서 '시편의 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간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간의 사랑의 노래이듯이 본 시 역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본 시 1-8절을 통해 신랑으로서의 왕의 위엄과 영화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9-15절을 통해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에 합당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둘의 결합으로 인해 완성될 축복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16-17절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관과 생활모습을 새로운 신분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본문속에서는 신부에게 아비의 집을 잊으라고 하고 있습니다(10절). 신부가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남편 중심으로 언어, 풍습, 옷, 구미까지도 남편과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속에서는 남편중심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합니다(11절). 이렇게 남편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남편은 아름답게 보고 신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부인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신랑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삶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결코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더우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한 세력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피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 시를 통하여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승리의 골짜기로, 생명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시의 배경은 히스기야왕때 앗수르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왔다가 18만 5천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2차 침입을 했을 때 히스기야왕은 1차 침입때와(왕하 18:13-16) 달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했습니다(왕하 19:14-19).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당신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시요 피난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왕하 19:20-37). 우리에게는 진정한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요 천국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이땅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요단 서편 가나안 산지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창 13:5-18). 우리 또한 이땅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때 주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곳이 천국입니다

기도제목 / 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 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각 민족마다 영웅이 있고 성군으로 불림받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아도 저들은 결함이 많고 실수도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며, 전혀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본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첫날에 드리던 신년제에서 부르던 이스라엘의 민족적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1-4절은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사 존귀케 하신 사실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5-9절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 좌정하셔서 열방을 치리하시는 전우주적인 통치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시는 성부 하나님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촛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찬양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됨과 자녀됨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약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라 자손인 저자는 본시에서 '하나님의 성'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거룩한 성과 같다고 말합니다(1-2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참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한 거룩한 성에는 계신 위대한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왕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만(3절),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분이시며(4, 5절), 강한 군대도 쉽게 물리치시는 용사라는 것입니다(7절, 사 10:8 참조). 그리고 그 왕은 그 거룩한 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영영히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8절). 저자는 하나님만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또한 저자는 이 거룩한 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9절).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처럼 찬송도 모든 땅에 들려졌으며, 오른손에 정의를 소유하셨다고 고백합니다(10절). 그래서 그의 판단은 너무나 올바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한다고 합니다(1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족속을 통해 그 이름이 찬양 받으실 것이며, 그의 공의는 장차 이 땅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여호와를 향해 영영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거룩한 산성이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내 삶의 산성이 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부는 얼마나 멋진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나 부가 허망하다고 말한다면 겉으로는 "맞아!"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부가 가져다주는 힘과 매력을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거민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오묘한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1-4절). 그리고 부의 허망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자만하는 자는 결코 형제를 구속하거나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6-8). 즉 어떤 부자라도 사람의 생명, 즉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9절). 결국 부자인 그도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며 어찌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집과 소유한 땅을 자기 소유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11절).

저자는 더 나아가 진실로 인생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14절), 그 대안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15절).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집안에 부유해지는 영광과 축하 받고 칭찬 받는 일 등,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그렇게 부한 사람도 그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16-19절). 그래도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분별력이 죽을 때 필요 없는 재물보다 낫다.

기도 제목 / ① 재물이 천국 길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타성에 젖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되새기지만 반복되어 가면서 의미보다는 의식이나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경건을 대체하는 그 순간 “위선”이라는 가장 해로운 적(敵)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이 시의 저자인 아삽은 다윗이 성전예배를 위해 찬양대장으로 세운 사람입니다(대상 15:17). 그는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위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위선” 그 자체였습니다. 아삽은 천상 재판소의 비유적인 용어를 빌어 사람들의 헛된 예배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1-6절).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이십니다. 온 만물이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 사람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박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주림을 채우기라도 하는 듯이 제사를 드립니다(7-13절).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언약의 말씀을 거론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밟아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16-20절).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기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21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의식과 경건을 혼동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22절).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진실한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23절, 롬 12:1 참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자신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때로 지은 죄들을 지적 받기도 합니다. 말씀이 지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적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는 삼하 11-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욕정을 이기지 못해 밋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행위를 악한 것으로 판단하셨고(삼하 11:27)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가 저지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비밀로 남았으면 했던 일이 드러나게 된 다윗은 자신의 악함에 직면하게 됩니다(1-12절). 진실로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체 높은 왕이요 고상하게 말하고 고상하게 걸던 나 자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증한 것이 될 뿐입니다(16절). 다윗은 울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엎드릴 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17절).

죄를 지적 받을 때, 어떤 이들은 더 완고해집니다. 나이를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고, 자리를 내세웁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혹은 죄인 이 아닌 것처럼 화를 냅니다. 사죄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악하지만 위대합니다. 그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인간의 죄악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 받았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죄를 지적 받을 때 겸손히 통회(痛悔)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악한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 보면 그들은 그러한 일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명으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표제에 언급된 “도엑”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삼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거룩한 떡(진설병)이지만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엑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1절) 간사한 혀로 사울을 부추깁니다(2-4절). 분노한 사울은 도엑을 시켜 아히멜렉의 집안을 몰살합니다(삼상 22장). 도엑이라는 사람은 이 일로 사울에게 더 큰 신임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결국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여… 네 뿌리를 뽑아버리시리로다”(5절).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악함으로 자기 삶을 구축해 가는 사람의 종말입니다.

그들의 완전한 파멸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경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파멸은 하나님의 원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기쁨의 확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6절).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할 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8절).

악인이 대적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곤경에 빠졌을 때 인내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사실을 중시하는 리얼리즘(Realism)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리얼리즘이란 덧붙이거나 고안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사실”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만큼은 리얼리즘이 포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함구하거나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낙관으로 과장하는 풍조가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순수하며 선하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능력을 가진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며 존엄성을 지닌 존재다. 여전히 세상의 미래는 이러한 인간에게 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리석으며, 부패하며, 가증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1절).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각도 없으며(2절) 하나같이 더럽기만 하다(3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 뿐이다(4절).” 어떤 증언이 사실일까요? 전자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면 세상은 최소한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쑥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롬 3:10-12).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얼리즘의 시대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사실성”을 지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과 희망있는 인류의 미래는 이 성경의 증언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6절).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죄성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희망임을 알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원 수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괴롭게 하는 일에는 당일에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눅23:13),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세상은 묘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한 영들의 사악한 의지가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의 창끝을 피해 십 황무지에 있는 수풀에 숨게 되었습니다(삼상 23:15-24). 그런데 십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두려웠기에 음모를 꾸민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약자요 소수이며 사울은 강자요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강포한 외인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수색하는(3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2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4절).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삼상 23:27-28).

세상(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입니다(벧전 5:8).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이름(1절), 선하신 이름(6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시는(7절) 이름인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영광과 존엄을 받으시옵소서

본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재위한지 약 32년정도 지났을 때 그가 겪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 자기 곁에서 친구로써, 그리고 조언자로써 늘 함께했던 아히도벨의 반역이었습니다.

본 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로 다윗은 악한자들로부터 압박과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고통에 대해 다윗은 6절에서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고 말함으로 그 고통의 정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부분은 12절에서 15절까지로 자신을 더욱 피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랑하고, 믿었던 자들에 의해 배신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포와 죄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한 자들을 향해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부분은 16절에서 23절까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변치 아니하는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뜻하지 아니하게 원수들을 만나고 친구들이 배반하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 만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정권에 집착하여 시기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망명 생활을 하던 중 불래 셋 땅 가드로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겪게 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삼상 21:10-15).

본 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로 시인 자신이 처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 대해 호소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의지 신앙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부분은 5절에서 11절까지로 원수들의 불의함에 대한 공의의 보응과 원수들의 꺾임으로 유리 방황하는 시인 자신의 절박한 감정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의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시인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그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과 11절에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시인은 여호와 의지신앙을 말합니다. 셋째부분은 12절과 13절로 일종의 부가절로써 지금까지 인도하여온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의거하여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서원의 내용을 노래합니다.

우리들은 온갖 악한 세력의 위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유리하는 나 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아둘람 굴(삼상 22:1-2), 엔게디 굴(삼상 24:1-3)로 피신해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여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나 본 시는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의지하여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확신하며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시다운 성격이 강합니다.

본 시는 5절과 11절의 후렴구에 의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는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탄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인 자신의 구원과 대적의 멸망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4절에서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라는 표현과 같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5절). 후반부인 6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입각하여 구원의 기쁨과 구원자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역동적인 찬양을 보여줍니다. 특히 6절에서 시인은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 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그 장애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위급한 위기에서 시인이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의인과 악인에 대한 궁극적 보응에 있어 철저하다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악인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많은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열거하면서 악인의 신속한 멸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그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격분된 어조로 본성적으로 부패한 악인의 불의와 강포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마땅히 공의를 행하며 불의에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재판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격분하고 있습니다. 둘째부분은 6절에서 9절까지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악인들의 신속한 멸망에 대한 일련의 저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 7절에서는 '급히 흐르는 물같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8절에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이 신속히 멸망하기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세째부분은 10절과 11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에 의거하는 신앙에 의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에 대한 의인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본받아 공의의 실현을 위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몸부림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로부터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낸 일이 있었는데(삼상19: 8-17) 이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본 시는 '셀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 시인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 자신을 제거하려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가리키어 '사악을 행하는 자,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2절),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는 자'(6절), '입술에 칼이 있는 자'(7절)로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부분은 6절에서 13절까지로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거만하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공의의 보응을 행하사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생존과 위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9절)과 방패(11절)가 되신다는 확고한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셋째부분은 14절에서 17절까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른 악인의 비참한 최후와 구원받은 의인의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남의 시기와 미움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그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산성과 방패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 ② 정은희 선교사(아프리카)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까? 혹시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다른 선배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군대가 아람 및 에돔 연합군에 맞서 싸운 전쟁(삼하 8:3-14)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전쟁 초반에 일시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에돔 군대에게 패배를 당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국가적 위기상황을 호소하며 승리를 간구한 기도입니다. 본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전반부(1-4절)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하여 패배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고, 후반부(5-12절)는 지난 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6-8절)에 의거하여 구원과 승리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어려움의 해결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으므로, 그분께 대한 신앙의 회복이 곧 승리의 관건임을 다윗은 인식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며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마음이 울적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조용한 곳을 생각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고 오직 나 홀로 있을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곳에서 우리의 문제와 필요함을 다 해결 받고 채울 수가 있을까요?

삶 속에서 곤란함을 느낀 다윗은 힘과 안전을 간구하며(1, 2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3, 4절)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5-7절)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것을 서원하고(8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곤란 속에서 하나님 외의 다른 위로와 도울 자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84:4). 주의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께서 계신 그 곳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6절)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주께서 예비하신 유업(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주와 교통하는 자는 비록 땅끝에 버림받은 것 같은(2절)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이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② 권요셉 최은아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종종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의 해결을 자신의 노력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를 짜내고, 도울 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바른 신앙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1, 2절과 5, 6절에서는 '반석', '구원', '산성'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절대적인 신뢰가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환난을 피해 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잠잠히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횡포를 본받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에 선악을 심판하실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많은 물질, 자녀들의 건강과 형통, 이런 것들입니까?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B.C. 979년경)으로 인해 유다 광야에 피신하여 머물고 있을 때(삼하 15:23, 28)에 쓴 시로서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자의 곤핍한 심정에 대한 묘사와 그런 갈급한 심정을, 여호와 구원의 은총으로 해소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갈망이 매우 강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가졌던 곤핍한 심정과 여호와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는 심정을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 땅에 비유하며 여호와를 앙망하였습니다. 이어 3-7절에서는 신앙에 의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다윗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끝으로 8-11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인한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언급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절대한계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애타게 여호와 구원의 은총만을 갈급해 하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는 그의 확고한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 평생에 해야 할 일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도우심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평생 주를 송축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리이다.

기도 제목 / 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② 추진희, 이소영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뛰어난 지휘자와 좋은 무기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믿음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데 우리가 병사로서 싸워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자신들의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해 악한 계교를 꾸미기를 서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악인들의 사악함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호소하는 전반부(1-6절)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줄지에 멸망할 것과 의인이 기뻐할 것을 노래한 후반부(7-1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악인의 칼날과 저들이 쏜 화살이 도리어 저들의 심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7, 8절). 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과 맞서기보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가장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용한 승리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10절)한 시인의 교훈에 가슴을 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1절).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소서.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들(아프리카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 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미약함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2절). 우리의 필요를 말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고민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중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특별히 기뻐하십니다(3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때라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의 영혼을 막아서는 대적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서 기도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거나,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두려워서, 혹은 죄의식이나 절망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믿음을 주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시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연단의 모습은 은을 정련할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10절).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 속으로 이 쪽 저 쪽 은을 통과시키는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은이 녹을 때 불순물이니 찌꺼기들이 표면에 올라오게 되고 세공자는 그것을 걷어냅니다. 은에서 불순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그는 그 일을 꾸준히 참으며 계속합니다. 은을 정련하는 마지막 단계는 세공자가 은을 자세히 보고 자신의 얼굴을 비쳤을 때 일그러지는 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은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그가 사 용하시는 용광로는 고통입니다. 용광로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 수록 불순물이 더욱 빨리 표면에 뜹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기다리시며 성령의 힘을 빌어 불순물을 걷어내십니다. 한 점의 찌꺼기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이 우리 사람에게서 깨끗하게 비춰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 십니다. 그가 이 정련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내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광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12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5, 16절).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9절)

기도 제목 / ① 내게 시험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②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 내게 시험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 군가의 관심을 받거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더구나 내가 그런 자격이 없고 오히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해도 한계가 있으며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약속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1절).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려고 하는 것보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6-7절).

기도 제목 / ① 하루의 삶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고 넓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6절).

군중 가운데서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북적대는 큰 도시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지를 모를 때 그것은 고독 가운데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최초의 사람에게 짝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는 우리를 외로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에게 주시길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죄로 인해서든, 환경에 의해서든,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건지셔서 형통케 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독한 자를 구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이 외로움을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메마른 땅과 같은 고독한 곳에서 계속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19절). 당신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거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당사자는 너무 힘들 것입니다(1-2절). 때론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면을 보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어떤 일면만을 보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은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옳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때,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더 마음이 아프기 마련입니다(7절). 그럴 때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19절)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내가 너무 화가 난다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는 것 등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순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아프게 해도(4, 8, 11절)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33절).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십시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때가 되면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평상시에 나에게 친절히 대하던 사람도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어렵게 될 때가 되면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또 한번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의 불행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사람은 내가 불행해 할 때 겉으로는 동정을 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3절) 라는 말은 다윗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이것이 마치 다윗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좋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분’ 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의 결말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며 물러가 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2절).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고한 비난을 받을 때, 옳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때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이 땅의 소외받은 자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구역공과 공부에 대해서 (꼭 읽어 보세요 !)

- ① 2001년도 2월부터 구역성경공부시간에는 매 주일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역공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 본문의 배경을 설명한다.

머물면서 - 본문에서 전달하려는 목적을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한다.

나오면서 - 본문에 대한 결론 및 적용을 생각해 본다.

- ② 먼저 각 교구의 목사님들께서 한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을 미리 다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공과를 준비하시다가 의문이 생기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고,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도 하시길 바랍니다.

- ③ 각 교구의 구역장님들께서는 '주간충현'에 실리는 다음 주일 설교의 내용을 읽으시면 구역 성경 공부를 더욱 효과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충현'에 실리는 설교가 그 주간에 실시되는 금요구역예배의 공과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미리 제시되는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각 구역에 속한 성도들께서도 '주간충현'의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의 답이 '설교'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교 내용을 잘 소화하시면 구역공과는 저절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⑤ 구역성경공부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풀거나, 그 동안 배우거나 들었던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연구하십시오. 그래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성경은 수학문제처럼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요구하는 핵심에 충실하셔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삶에 열매를 맺게 하면 될 것입니다.

⑥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것은 구역성경공부가 모임자체로 목적을 두는데서 벗어나서 더욱더 단단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견해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구의 지도자와 구역장, 그리고 구역원 모두가 말씀 연구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실제로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모든 구역에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구역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충만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 1 과

주의 죽으심을 전파함

찬송 / 282장(유월절 때가 이르매)

본문 / 고전 11:23-26

들어가면서(서론)

남부 헬라의 상업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 타락의 중심지로서 평판이 나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의 능력은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행18:1-7). 그러나 바울이 떠나온 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고, 바울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들을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결심하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과당과 소송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1장-6장), 결혼과 자유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 주었으며(7장-10장), 예배에 대한 시각(11장-14장),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15장-16장).

이렇게 고린도교회에 발생한 문제들 가운데 오늘 배우게 될 '성만찬'은 예배와 관계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며, 예배 중에 행해지는 성만찬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소중한 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성만찬'이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먹고 마시는 일이 위

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고전11:22).

그러므로 오늘 배우게 될 성만찬에 대한 공부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배우시고,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진정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성찬에 대한 두 편의 글을 읽으시고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성찬의 역사성

성찬은 참되고 영원하신 왕의 식탁으로의 초청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의 모형이다. 그래서 성찬에는 진정한 역사가 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 벧세다 돌녀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시던 주님! 그 분이 하늘로서 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다. 그리고 그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죄인된 인생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언약이요, 아름다운 만남이다.

② 성찬의 의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의 상징성이 풍부한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정하신 성례전적 징표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신다. 성례는 단지 은혜의 징표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연 속의 어떤 것이 아니다. 성례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함을 나타낸다. 성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의 활동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언약의 식사이다.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22:20, 고전11:25)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옛 언약, 곧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중에 예수님에 의하여 제정된 새 언약의 만찬이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분의 사역을 확증하며 우리의 믿음에 인을 치셔서 새 언약의 인을 받도록 하신다. 삼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세례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분의 가족이라는 회원됨을 표시하는 것처럼, 성찬도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표시한다(E. P. Clowney의 ‘교회’ 중에서)

2.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 ① 23절a -
- ② 23절b-24절 -
- ③ 25절 -
- ④ 26절 -

3.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어떠한 의무를 행해야 합니까?

- ① 고전 11:26 -

4. 성만찬 때에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고전 15:3 -

마 1:21 -

벧전 1:24, 25 -

② 참 죄인을 위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요 3:16 -

롬 5:8 -

③ 한 영혼조차도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 18:14 -

눅 15:7 -

나가면서(결론)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만찬에 대한 역사와 의미 그리고 연관된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의미는 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대속과 구원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성만찬을 함부로 여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철저하게 개혁되어져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격월로 참여하는 성찬식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과 돌이켜야 할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성찬식에 있어서 누려야 할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2 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찬송 / 384장(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본문 / 행 12:1-17

들어가면서(서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의 뒤를 이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지상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광경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더욱더 이방세계로 확산시켜나가는 모습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행전',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향한 '성령행전' 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성경공부에 연관된 배경을 살펴보면 1장-4장에는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5장-7

장까지는 거짓과 순교의 박해 속에서도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12장까지는 빌립의 전도와 사울의 회심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과 야고보의 순교 등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항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우게 될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공부하시면서 복음의 확장되는 곳에 핏박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1:8)는 사도 바울의 선포는 결코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머물면서(본론)

1.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십시오(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세요).
 - ① 1절- 2절 -
 - ② 3절- 5절 -
 - ③ 6절-11절 -
 - ④ 12절-17절 -

2. 베드로의 투옥과 교회의 중보 기도에 대해 배우기 전에 헤롯왕이 베드로를 체포한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① 행 12:1 -

 - ② 행 12:3 -

3.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네 명씩 네 그룹, 즉 16 명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① 행 5:19 -

4. 오늘의 본문 중, 5절에 나타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①

②

5.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행 12:5b -

② 의미(행 9:2, 12:2 참조) -

6.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을까요?

① 출 14:13-18 -

② 단 6:10, 23 -

③ 왕상 18:36-40 -

④ 빌 4:6, 7 -

⑤ 뱀전 4:7 -

⑥ 막 9:29 -

7.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교회가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① 행 12:11 -

② 행 12:15(요 15:7 참고) -

나오면서(결론)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찰스 스펔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방문객들에게 런던에서 그가 사역하는 거대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거대할 뿐만 아니라 참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교회 시설들을 보여주고 또 그밖에 건물 안에 숨겨진 여러 기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스펔전이 4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찬 방문을 여는 순간 놀라던 방문객들의 표정들을 말입니다.

진실한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한 여러 사항들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과 분량을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하지요”라고 말해놓고,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그리고 각자가 홀로 일 때도 정기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시간과 장소와 제목과 분량). 기도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 3 과

고통 중 찬미하매

찬송 / 383장(환난과 핍박 중에도)

본문 / 행 16:11-40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2차 전도여행은 새로운 동반자 실라와 함께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으나, 도중 탈락했던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려했던 바나바와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실라와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행15:36-41).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세하고(행16:1),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합세하게 됩니다(행16:10의 '우리'라는 단어는 누가를 포함하고 있음을 뜻한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처음 쓴 곳이다). 사도 바울은 이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역(오늘날의 유럽)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행16:6-10).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곳 중의 하나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했고, 그 고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의 본문 뿐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나듯이, 바울은 감옥이나 기타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오히려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등,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조차 영혼을 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

오늘의 성경공부 내용과는 관계가 깊지 않지만, 2주째 사도행전을 다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① 1차 전도여행(행 13장-14장) : 소아시아(오늘날의 터키), 갈라디아서를 기록
- ② 2차 전도여행(행 16장-18장) : 마게도니아(오늘날의 유럽), 데살로니가전·후서 기록
- ③ 3차 전도여행(행 18:23-21:17) : 2차 전도지역 탐방,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기록
- ④ 4차 전도여행(행 27장-28장) : 죄인으로 로마에 이송, 옥에서 에베소·골로새·빌립보·빌레몬서 기록('옥중서신' 이라고 합니다).
- ⑤ 그리고 잠시 풀려난 동안 :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기록
- ⑥ 다시 투옥되어 옥중 :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서신으로 기록

머물면서(본론)

1.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십시오(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세요).

- ① 11절-15절 -
- ② 16절-18절 -
- ③ 19절-24절 -
- ④ 25절-34절 -
- ⑤ 35절-40절 -

2.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맞고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 ① 행 16:19 (실제적인 이유) -
- ② 행 16:20, 21(여종 주인의 거짓 이유) -

3.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커녕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분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매우 상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②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 ① 이유(빌1:20, 21) -
- ② 반응(행 16:25) -

4.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바울과 실라, 그러나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① 행 28:20 -

② 행 5:41 -

③ 고후 7:4 -

④ 약 1:2 -

5. 고통 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① 시 77:6 -

② 딤후 1:12 -

③ 벧전 5:7 -

④ 롬 8:28 -

⑤ 시 30:4,5 -

나오면서(결론)

비록 세상이 여러분을 끌어내고, 괴롭히고, 욕보이고, 핍박해도, 신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종교적·정치적·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시련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28:20).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움직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겸손히 무릎꿇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4 과

두 주인

찬송 / 102장(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본문 / 마 6:19-24

들어가면서(서론)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①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훈과(5장-7장) ②열두 사도들에 대한 의무(10장), 그리고 ③천국 비유들과(13장), ④큰 자에 대한 교훈(18장), 또한 ⑤바리새인을 향한 책망(23장)과, ⑥감람산 설교(24,25장)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설교 중에서 산상수훈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위해 의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에 대한 '천국 성명서'인 산상수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단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4:17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과 연

결되어서 생각되어집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천국시민의 '회개한 생활 방식'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시작은 구약의 축복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그들이 ...하리라'는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ex. 시 1:1). 여기서 축복이란 회개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회개와 연관이 되어져진 행동강령으로써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본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십시오(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세요).
 - ① 19-21절 -
 - ② 22, 23절 -
 - ③ 24절 -
2. 오늘의 본문에 속한 말씀 중 19절과 20절에서 각각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19절(하지 말아야 할 것) -
 - ② 20절(해야 할 것) -
3.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 ① 21절 -

② 뜻 -

4. 예수께서 22, 22절에 말씀하신 '눈' 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① 고전 2:14 -

② 롬 12:1 -

5. 눈이 성할 때와 나쁠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① 22절(눈이 성할 때) -

② 23절(눈이 나쁠 때) -

6. 예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4절).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① 대상 -

② 특징 -

7. 두 주인을 섬기려는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기려는 태도 외에도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본심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① 본심 -

② 특징 -

-
8. 사실 두 주인을 섬기는 이들의 본심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 축척이나 자아의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제안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① 마 22:37 -

9.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은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① 사 42:8 - 내 영광을 ...

② 사 48:11 -

나가면서(결론)

오늘의 교훈은 재물에 있어서 천국생활의 실천에 대한 선언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또는 왕으로 생각하신다면, 삶에 있어서 실제로 왕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음의 질문에 대해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①내게 주어진 시간(or 세월)의 주인은 예수이신가 나인가? ②나의 수입과 지출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정당한 것인가?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1 과

안식

찬 송 / 478장
읽을 말씀 / 시 23:1, 2
마 11:28
외울 말씀 / 마 11:28

1. 최근에 당신이 가장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안식의 시작과 상실

다음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창 2: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 2: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

룩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2.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의 시작은 언제입니까?(창2:2,3)
3.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창3:16,17)

안식을 위한 명령

다음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20: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4.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소망하라고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출 20:8-10)

안식에 대한 세상적 추구

다음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
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들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눅 12:17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꼬 하고

눅 12:18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눅 12: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눅 12: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
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눅 12: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5.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식을 누리 보기를 원하는
인생들을 행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창11:3,4 ; 눅12:9)

6.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사는 어떻습니까?(창11:7,8 ; 눅12:20,21)

참다운 안식의 길

다음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
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리라

7.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시 23:1-2)

-
8.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 11:28-30)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안식을, 진정한 기쁨을, 평강을, 능력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을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날에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게한 주님의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땅이 시작되는 그 날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병이 없는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 각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기도제목을 한 두가지 나누시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1년 3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윤희, 안창덕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